신안 명품 김, 세계인 입맛 잡는다

전국 최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
성장여건 조성 예산 50억원 확보
양식업 종사자 체계적 육성 지원

신안군은 전국 최초로 김 산업 진흥구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세계적인 명품 김 생산 지역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지속 가능한 김 산업 육성을 통해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국내를 넘어 세계인의 입맛을 사로잡는 차별화 된 김 생산으로 청정 신안의 위상을 다질 것으로 보인다.

신안군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 공모한 김 산업 성장여건을 조성할 필요가 있는 곳을 진흥구역으로 지정하는 사업에 선정돼 총 5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다.

이에따라 지역 내 김 양식업에 종사하는 어민들에게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에 나선다.

신안군에서 생산된 김(조미김, 스낵김)은 미국, 일본, 중국, 캐나다로 수출 되는 등 전국 최대 규모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높아짐에 따라 김 수입국에서는 위생과 품질의 안전성 요구가 점차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국가에서는 규제를 강화하면서 통상 거부 현상도 발생하고 있는 등 김 산업이 전반적으로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처했다.

군은 세계적인 명품 김 생산을 위해 발 빠르게 북부권 김양식 지구를 수출 김 전용단지로 지정하고 공모사업 신청에 나섰다.

지도읍과 임자면 등 북부권 김 양식장 1,118ha로 양식어가 387가구가 해당된다.

지난 1월 9일에는 신안군청에서 북부권김생산자협의회, ㈜신안천사김과 미국 수출김 전용단지 지정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해 선제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공모 사업 지구 신청 일대를 친환경 유기인증 단지로 조성해 국내외 인증을 통한 품질향상, 위생 및 안전관리를 강화해 김 산업의 국내외 경쟁력을 제고할 계획이다.

또 친환경 기자재 보급과 친환경 유기인증 취득 지원, 김 가공공장 품질 개선 등을 통해 체계적인 관리로 세계 소비 시장을 겨냥해 나가는데 행·재정력을 총동원할 방침이다.

현재 신안군 김 양식어장은 9,139ha로, 지난해 550어가가 참여해 물김 4만5,953톤을 생산, 520억원의 소득을 올렸다.

박우량 군수는 "이번 김 산업 진흥구역 지정으로 신안군이 김 수출 증대에 앞장설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며 "김 산업 발전과 지역민의 소득증대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신안=이주열 기자

영산포역사가 최근 재현 문화체험전시관으로 신축·개관했다. /나주시 제공

영산포역, 문화체험전시관 재탄생

1910년대부터 2000년대 초까지 호남 지역 교통과 물류의 중심지로 영산포 번영을 이끌었던 옛 영산포역이 문화체험전시관으로 재탄생했다.

나주시는 최근 옛 영산포역사 신축 현장에서 시민 500여명과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 개관식'을 성대히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영산포역사 문화체험전시관은 연면적 553.17㎡에 영산포역사 재현 전시관 1동, 어린이 기차체험관 1동 신축 계획에 따라 총 사업비 29억원을 투입, 지난 2020년 9월 착공해 2022년 12월 완공됐다.

전시관 내부에는 영산포 명칭 유래와 역사, 호남 지역 교통·물류의 관문으로 전성기를 구가했던 영산포역 이야기와 옛 사진들, 주민들의 생활상 등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게시물이 설치됐다.

'매표소', '역무원 복장 체험', '기관사·승객 VR체험', '대합실 홍익 매점', '역무원 실제 물품 전시' 등 아련한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소소한 볼거리와 다채로운 체험 콘텐츠도 눈길을 끈다.

전시관 옆 동 어린이 기차 체험관에는 '미니 트레인 탑승 체험', '암벽 등반 놀이 시설', '보호자 대기실' 등 아동 전용 놀이 공간으로 꾸며졌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기념사를 통해 "영산포 주민들의 삶과 애환이 깃든 공간이자 호남의 물류·교통 중심지 역할을 했던 옛 영산포역이 이제는 문화·체험·전시 공간을 갖춘 복합센터로 재탄생했다"며 "영산포 관광, 상권 활성화의 마중물이자 나주의 새로운 명소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시는 전시관 건립을 통해 1만4,000여평 규모의 영산포 철도공원 내 레일 바이크, 야외공연장, 초화원 등 관광자원과 인근 국립나주문화재연구소와 연계한 영산포 권역 관광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특히 불빛 정원, 가로환경 정비, 휴게시설 확충 등 활성화 방안을 검토·도입해 영산포 철도공원과 전시관 일대를 사계절 관광 명소로 만든다는 계획이다. /나주=조중권 기자

"우리는 한 뿌리"…목포신안통합추진위 출범

상생발전 역량 결집 다짐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가 최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3년 출범식을 가졌다. /목포시 제공

목포신안통합추진위원회(위원장 최태옥)가 최근 김대중노벨평화상기념관에서 2023년 출범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 김원이 국회의원, 문차복 목포시의회 의장 등 주요 인사는 물론, 추진위원 50명, 홍보위원 28명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태옥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신안과 목포는 본디 한 뿌리이며, 생활, 문화, 경제, 교육 등 많은 부문이 한데 얽혀 있어 목포가 신안이고 신안이 목포인 사실상 일심동체"라고 말했다.

이어 박홍률 목포시장과 박우량 신안군수는 축사를 통해 지방소멸의 시대를 맞아 민간 중심으로 목포·신안 통합의 공감대를 만들어 가면서 관광통합, 경제통합, 최종적으로 행정통합을 이뤄 두 지역이 상생발전 할 수 있도록 진심과 정성을 다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가자고 결의했다.

이어서 새로 위촉된 추진위원과 홍보위원에게 위촉장을 수여했고, 통합 촉구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는 양 지역의 상생과 번영을 위한 행정통합은 더 이상 미뤄져서는 안 되며 지난 6번의 통합무산을 반면교사로 삼아 이번에는 반드시 통합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양 지역 사회지도층 및 주민들이 힘을 결집해 줄 것을 요청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편, 목포 신안 통합추진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전문가 및 활동가 80여명으로 구성된 순수 민간단체이며, 2020년 12월 출범 이후 목포신안 통합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또한, 앞으로도 목포와 신안 주민들이 상생 협력할 수 있도록 목포시 자생단체와 신안군 자생단체 간 자매결연 추진하고 지역민 교육프로그램인 어울아카데미 운영, 통합 이후 발전방향과 비전 제시를 위한 대토론회 개최, 캠페인 광고 등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 나갈 계획이다. /목포=박승경 기자

해남문화관광재단, 지역관광 육성 공모 선정

해남문화관광재단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주관하는 2023년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육성지원 공모사업에 2년 연속 최종 선정됐다고 13일 밝혔다.

지역관광추진조직(DMO) 사업은 지역 내 주민, 사업체, 관광 관련 청년사업자, 지자체 등이 연계해 주도적으로 지역관광자원을 발굴해 사업을 기획, 경영·관리하는 시스템을 주도적으로 이끌어는 가는 조직체계이다.

해남문화관광재단은 2021년 9월 출범이후 DMO사업 1차년에 선정돼 ESG 필수사업으로 관광지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 병뚜껑을 리사이클링 제품으로 제작해 지역 내 숙박시설에 보급하는 '탄소 먹꾸마' 사업과 지역의 청년 일꾼들이 지역관광산업을 준비하는 관광 커뮤니티 공간인 '해남모아'를 구축했다.

이병욱 대표이사는 재단설립 이후 1차년도에 선정된 DMO사업이 지역내 관광거버넌스 조직에 큰 역할을 했고 지난해 해남군과 해남문화관광재단이 자체적으로 워케이션 기반 구축을 위해서 국회포럼, (사)웹툰협회 등 6개 K-콘텐츠 단체 참여 유치 협약 노력이 2차년 사업 선정에 기여했다.

2차년도에는 해남군에서 추진하는 ESG사업을 도모하기 위해 ESG실천 관광품질인증제 도입, 필수사업인 생활인구 유입을 위한 해남형 워케이션, 두륜산도립공원 관리사무소 2층에 마련한 '해남모아' 공간을 관광거점센터로 운영해 각종 관광상품 홍보 및 판매, 문화예술작품 전시, 지역관광협의체 소통공간, 관광지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해남=박병태 기자

클릭! 고향 속으로

장성, 이웃사랑 나눔 소식 잇따라

장성군이 봄 햇살 가득한 3월 초입부터 따스한 나눔 소식을 전했다.

13일 장성군에 따르면 최근 한국전력공사 장성지사(지사장 류지상)가 지역 내 에너지 취약 주민을 위해 온누리상품권 200만 원과 50만 원 상당의 생필품을 후원했다. 후원금은 지사 직원들이 급여에서 기부한 금액으로 마련해 의미를 더했다.

해표산업㈜(대표 홍동호)도 기부릴레이에 동참했다. 해표산업㈜는 어려운 이웃에게 전해 달라며 500만 원 상당 백미를 군에 기탁했다.

삼계면 청년회(회장 김천구)는 어르신 도시락 배달 봉사를 펼치고 있는 자원봉사회를 후원하는 의미로 200만 원 상당의 식기세척기를 쾌척했다. /장성=전일용 기자

운남면 양돈농가 4곳, 취약계층에 성금

무안군 운남면 양돈농가의 이웃돕기 성금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최근 4개 양돈농가가 성금모금에 동참해 270만원을 운남면사무소에 기탁했다.

이날 참여한 양돈농가는 목섬농장(대표 김상수), 신월농장(대표 김기현), 내화축산(대표 정태면), 영해축산(대표 정해성)이며 100만원에서 20만원까지 기부해 이웃사랑 실천을 함께했다.

김나연 운남면장은 "어려운 이웃을 위한 자발적 참여로 지역사회를 훈훈하게 한 양돈농가의 나눔에 감사함을 전한다"며 "양돈농가의 따뜻한 마음을 소외계층 한분 한분께 잘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무안=박주현 기자

목포경찰서, 도서지역 교통사고 예방 홍보

목포경찰서(서장 이준영)는 봄 행락철 관광객 증가와 함께 발농사 등을 위한 농·어촌 지역의 유동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농·어촌 지역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단속 및 홍보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11일 신안군 압해면·암태면·자은면 지역에서 어르신들의 교통사고예방을 위해 '보행시 좌우 살피기', '야간 보행시 밝은 옷 입기' 등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함과 동시에 야광지팡이·야광조끼를 배포했고, 경운기·어르신 보행 보조기에 태양열 경광등을 부착하는 등 홍보활동을 펼쳤다. 아울러 상춘객이 증가함에 따라 음주운전 등 교통법규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 1건을 적발했다. /목포=김동균 기자